



책을 읽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100Books'
“독서는 종교 위에 있는 것,
독서로 대중을 지성화해야 합니다”

글_정윤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100Books' (www.100booksclub.com)는 지난 9월 14일 금요일 저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회의실에서 125번째 책 《니체의 위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은 회원들이 저자인 고병권 박사를 초청해 특강을 듣고, 토론 시간을 가졌다. 50여 명의 회원들은 저자 특강을 들은 후 100Books의 박문호 위원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집으로 옮겨 새벽 2시까지 독서토론의 열기를 이어갔다.

지난 2002년에 대전에서 출발한 시작한 100Books의 목표는 명백하다. 100권의 책을 읽어보자는 것. 그러나 이미 목표 분량인 100권을 넘긴 지 오래이다. 20대 대학생부터 6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하고 20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온라인 회원만 3,000명이 넘는다.

회원들은 자율적으로 각자 2주마다 책 1~2권을 읽고 독후감 게시판에 각자 독후감을 쓴다. 회원들이 모두 같이 읽을 책은 운영위원들이 선정해 선정도서란에 공지하고 있다. 선정된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토론하는 장이 바로 오프라인 미팅이다. 오프라인 미팅은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모임은 편안하게 책 읽은 소감을 나누는 시간으로 책을 추천한 회원이나 저자를 초청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얼굴학자 조용진 교수, 함민복 시인 등 저자들이 100Books에서 특강을 했다.

100Books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빼놓을 수 없는 게 '학습여행'이다. 박문호 위원장은 “극지를 탐험하는

전문탐험가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 그 중간이 블루우션"이라고 설명한다.

학습여행으로 100Books 회원 중 6명은 지난 9월 4일부터 11일, 7박8일간 호주 서부를 탐사하고 돌아왔다. 탐을 이끈 박문호 위원장은 "일반인 수준으로도 전문 탐사팀 수준의 탐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탐사 내내 비행시간 2일을 뺀 6일 동안 좁은 차 안에서 쉴지도 못한 채 8,500km를 탐사차량으로 이동하는 고군분투의 여정이었다"고 회고했다.

100Books는 '지독하게 자연과학 책을 읽자, 종교와 정치는 논하지 말자, 쉬운 책은 읽을 필요가 없다' 라는 독서방침을 세워놓고 '종교 위에 새로운 문화활동으로 독서'를 지향한다. 흔히 생각하는 독서는 교양 차원이 아니다.

"독서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독서는 지난 500년 동안 선비들 몸속에 체화돼 온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예요. 지구상에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도 학습하는 사회계층이 없었어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책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유산을 다시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박문호 위원장은 "출판의 트렌드가 '지성을 대중화' 하고 있는데, 100Books가 지향하는 독서는 '대중을 지성화'는 것"이라면서 "텔레비전을 치우고 거실을 서재로 만드는 운동도 좋지만,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즐거운 삶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독서를 통해 집단지성을 이루고 나아가 문화적 혁명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

100Books 박문호 공동위원장

“보편타당한 세계관을 갖는 게 독서 하는 목적이에요”

100Books의 공동위원장 박문호 박사는 지난 10년간 매년 300권 분량을 읽었다. 뇌과학, 천체물리학, 양자역학, 불교철학 등 4,000여 권에 달하는 장서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넘나드는 그동안의 지적활동을 보여준다.

박 위원장은 올해 초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연구공간 슈유너머에서 '뇌와 생각의 출현'이라는 테마로 강의를 했다. 특강을 들은 한 수강생은 "박문호 선생님의 강의는 한마디로 HOT! 뜨겁다, 열정적이다, 후끈 달아오르게 만듦다, 맵다, 색시하다 등의 느낌 그대로를 표현한 기호인 HOT이 딱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꽤 인기가 높았다.

열정적인 강의는 독서로부터 발산된 듯하다.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를 보면 '인간 삶에서 영속적인 것은 도서관이다'라고 말해요. 인간들의 많은 지적활동, 그것을 문자로 남겨놓은 것이 도서관이잖아요. 그만큼 도서관은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박 위원장은 독자들에게 몇 권의 책을 소개해 줬다. "일본의 야생사진 작가가 쓴 《알래스카 바람 같은 그 이야기》는 알래스카에 20년 살면서 자연을 다 찍었어요. 저자는 나중에 곰에 잡혀 먹었지요. 사진도 잘 찍었지만 글이 아주 빼어나죠. 스티븐 제이 굴드가 지은 《생명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는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알려진 생물 진화의 매우 독특한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보디보》는 1980년대 불거지기 시작한 생물학계를 세계

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파비니아》시리즈는 눈이 다섯 개인 동물 파비니아를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자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발굴현장을 책으로 담은 겁니다. 《뇌과학과 철학》은 뇌과학을 철학적으로 풀어 쓴 책인데, 번역자가 12년 동안 번역에 매달린 책이예요. 이 외

에도 소개해 줄 책들이 많은데, 대중을 위한 도서가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어요. 우리 독자도 이전 과학책을 읽어야 합니다. 독자들이 읽지 않으니 2~3년 되면 비중 있는 책들이 참혹할 정도로 사장 돼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책도 마찬가지로 한다. 그래서 100Books가 하는 일 중 하나는 좋은 책들을 많이 홍보해 주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독서풍토가 바뀌어야 합니다. 실용서는 업무의 연장이에요. 독서는 결코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용과 관계있는 것은 독서가 아니죠. 궁극적으로 종교 위에 독서가 있고, 독서를 통해 보편타당한 세계관을 갖는 게 독서를 하는 목적이에요. 때문에 인문과학도 중요하지만 자연과학도 모두 섭렵해야 하겠죠." **★**

